

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성립 과정과 의의*

김 동 운**

요 약

본 논문은 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성립 과정 및 지분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는 두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2017년 10월 롯데제과가 2개 회사(롯데지주, 롯데제과)로 인적 분할하였다. 롯데지주는 존속회사로서 상호 변경과 함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롯데제과는 신설되었다. 롯데지주는 기존 롯데제과의 영위사업 중 투자부문을, 신설 롯데제과는 나머지 사업부문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와 동시에, 3개 계열회사의 투자부문이 인적 분할된 후 모두 롯데지주에 흡수합병되었다. 둘째, 2018년 4월 6개 계열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롯데지주에 흡수합병되었다; 2개 회사는 투자부문이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된 후, 3개 회사는 투자부문이 인적 분할을 통해 존속회사로 나누어진 뒤 모두 롯데지주에 합병되었다; 1개 회사는 롯데지주에 바로 합병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2018년 9월 현재 롯데그룹은 91개 계열회사 중 57%에 달하는 52개가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되어 있다.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자회사 24개, 손자회사 27개 등이다. 롯데지주의 최대주주는 그룹 동일인인 신동빈이며 지분은 10.5%로 적은 편이다. 대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8.3%이고, 자기주식은 더 많은 39.3%이다. 특수관계인 중에는 7개 계열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동빈 또한 롯데지주 외에 17개의 다른 계열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고 신동빈의 롯데지주 지분이 어느 정도로 강화될지, 그리고 롯데지주의 계열회사 수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여 보다 성숙한 지주회사체제가 확립될지 주목된다.

〈주제어〉 롯데그룹, 지배구조, 지주회사체제, 지주회사, 롯데지주, 신동빈

* 논문의 주요 내용은 한국경영사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11월 30일, 성균관대)와 2019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국산업조직학회 분과(2월 14일, 성균관대)에서 발표되었다.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동명대 김청열 교수, 건국대 권남훈 교수, 그리고 학술지 심사위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dongwoon@deu.ac.kr.

I. 머리말

본 논문은 롯데그룹(2017~18년 현재 5위 대규모집단)에서 지주회사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전망한다. 롯데그룹이 새로운 지배구조를 채택하게 된 것은 최근 1년 여 사이(2017년 4월~2018년 4월)이며, 그런 만큼 변화는 아직 시작 단계이고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초기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롯데그룹은 주요 집단들 중 가장 최근에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집단이다. 대규모집단의 지주회사체제 도입은 1999년 지주회사제도가 다시 허용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대부터는 보다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 57개 대규모집단 중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집단은 절반이 넘는 29개(51%)이며, 29개 중 21개(57개 중 37%)는 그룹 계열회사의 다수가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그리고 나머지 8개는 그룹 계열회사의 일부만이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소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하였다. 특히, 지주회사체제 도입 비중은 상위 10개 집단 중에서 더욱 높아, 적극적·소극적 체제의 비중은 70%(7개), 적극적 체제의 비중은 50%였다(5개 : 3위 SK, 4위 LG, 7위 GS, 9위 현대중공업, 10위 농협).¹⁾ 롯데그룹(5위)은 2017년 10월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로써 10대 집단 중에서의 지주회사체제 도입 비중은 각각 80%(8개), 60%(6개)로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를 다룬 연구는 아직 나와 있지 않으며, 본 연구의 내용이 심층적인 후속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주요 문헌은 롯데제과와 롯데지주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할 및 합병 관련 문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자료이다. 롯데그룹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서울신문사 산업부(2004), 이한구(2010), 최정표(2014) 등에 나와 있으며, 다른 주요 집단의 지주회사체제와 관련해서는 김동운(2010, 2011, 2012, 2013, 2014, 2016)의 연구가 있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가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정착되면 다른 집단들과의 비교 분석이 의미 있는 후속연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된 연도는 다음과 같다: SK(2000년), LG(2001년), GS(2005년), 농협(2012년), 현대중공업(2017년). 소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2개 집단은 삼성(1위, 2004년)과 한화(8위, 2005년)이며, 지주회사를 채택하지 않은 3개 집단은 현대자동차(2위), 롯데(5위), 그리고 POSCO(6위)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롯데그룹의 성장)에서는 1987년 대규모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까지 32년 동안 롯데그룹이 성장해 온 모습을 소개한다. 제Ⅲ장(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의 변화, 2005~2015년)에서는, 2005~06년과 2015~16년 소극적인 체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에 적극적인 체제를 도입하게 된 과정을 정리한 후, 이로 인해 2012~18년 사이 그룹의 소유구조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소유지분도’를 통해 확인한다. 제Ⅳ장(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의 구축, 2017~2018년)에서는 적극적인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을 1단계(지주회사 롯데지주의 출범)와 2단계(11개 순환출자의 해소)로 나누어 자세하게 분석하며, 제Ⅴ장(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 2018년 9월)에서는 2단계가 마무리된 이후의 소유구조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맺음말)에서는 앞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의 전개 과정을 전망한다.

Ⅱ. 롯데그룹의 성장

롯데그룹은 2018년 5월 현재 자산총액 기준 5위의 대규모기업집단이다. 계열회사는 107개, 자산총액은 116.1조 원 그리고 동일인은 신동빈이다(〈표 1〉).

롯데그룹은 1948년 일본에 그리고 1958년 한국에 (주)롯데가 각각 설립되면서 출범하였다. 2019년은 한국에서의 창립 61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7년 대규모기업집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32년 동안 줄곧 대규모집단으로 지정되었다. (1) 순위는 8~10위(1987~99년), 6~8위(2000~04년)이다가 2006년 이후 1개 연도(2009년, 6위)를 제외하고는 5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 순위의 기준인 자산총액은 10조 원 미만(1987~98년), 10~40조 원대(1999~2009년), 60~90조 원대(2010~15년)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100조원 대, 2017~18년에는 110조 원대로 더욱 증가하였다. (3) 계열회사 또한 28~32개(1987~2002년), 35~46개(2002~08년), 54~93개(2009~17년), 그리고 107개(2018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8년의 ‘107개’는 1987년 이후 대규모집단이 보유한 ‘최대의 계열회사 수’이다. (4) 한편, 동일인은 2017년까지는 창업자인 신격호였는데,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해 온 둘째 아들 신동빈이 2018년 새로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다.

〈표 1〉 롯데그룹의 성장, 1987~2018년:

순위(A, 위), 계열회사(B, 개), 자산총액(C, 10억 원), 1개 계열회사 평균자산(D, 10억 원)

연도	A	B	C	D	연도	A	B	C	D
1987	10	31	1,648	53	2003	7	35	20,741	593
1988	9	32	2,125	66	2004	7	36	24,620	684
1989	9	32	2,664	83	2005	5	41	30,302	739
1990	8	31	3,215	104	2006	5	43	32,961	767
1991	10	32	3,962	124	2007	5	44	40,208	914
1992	10	32	4,887	153	2008	5	46	43,679	950
1993	10	32	5,274	165	2009	6	54	48,890	905
1994	10	30	5,595	187	2010	5	60	67,265	1,121
1995	10	29	6,628	229	2011	5	78	77,349	992
1996	10	28	7,090	253	2012	5	79	83,305	1,054
1997	10	30	7,774	259	2013	5	77	87,523	1,137
1998	11	28	8,862	317	2014	5	74	91,666	1,239
1999	10	28	10,446	373	2015	5	80	93,407	1,168
2000	6	28	15,791	564	2016	5	93	103,284	1,111
2001	8	31	16,694	539	2017	5	90	110,820	1,231
2002	7	32	17,964	561	2018	5	107	116,188	1,086

주: 1) 1987~2016년 4월, 2017~18년 5월 현재

2) 설립연도: 1948년 (주)롯데(일본), 1958년 (주)롯데(한국), 1966년 롯데알미늄, 1967년 롯데제과.

3) 동일인: 1987~2017년 신격호, 2018년 신동빈.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Ⅲ. 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의 변화, 2005~2018년

1. 소극적인 지주회사체제에서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로

롯데그룹은 2005~2006년 그리고 2015~2016년에 계열회사의 일부만이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된 '소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으며, 2017~2018년에 계열회사의 다수가 편입된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2005~2005년에는 2개 지주회사(롯데물산, 롯데산업)가 각각 4개, 1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렸으며,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16~17%([체제 편입 회사 7개] ÷ [그룹 전체 계열회사 41~43개])×100)로 매우 낮았다. 두 지주회사는 2005년 1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었으며, 최대주주는 그룹 계열회사인 롯데호텔이었고, 지배 계열회사는 각각 4개(자회사 1개, 손자회사 3개), 1개(자회사)였다. 하지만, 2006년 12월 법률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주회사 지정에서 함께 제외되었다.

〈표 2〉 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의 변화, 2005~2018년

연도	그룹		지주회사체제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B/A, %)
	순위	계열회사 (A, 개)	지주회사 (a)	순위	계열회사 (b, 개)	합 (a+b=B, 개)	
2005	5	41	롯데물산	3	4	5	17
			롯데산업	16	1		
2006	5	43	롯데물산	3	4	5	16
			롯데산업	13	1		
2015	5	80	이지스일호	29	2	3	4
2016	5	93	이지스일호	-	2	3	3
2018	5	107	롯데지주	-	47	48	45

주 : 1) 그룹은 4월(2005~16년) 또는 5월(2018년) 현재; 지주회사는 9월 현재, 지주회사 계열회사는 이전 연도 12월 현재; 그룹 및 지주회사 순위는 자산총액 기준.

2)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 [(체제 편입 회사 수) ÷ (전체 계열회사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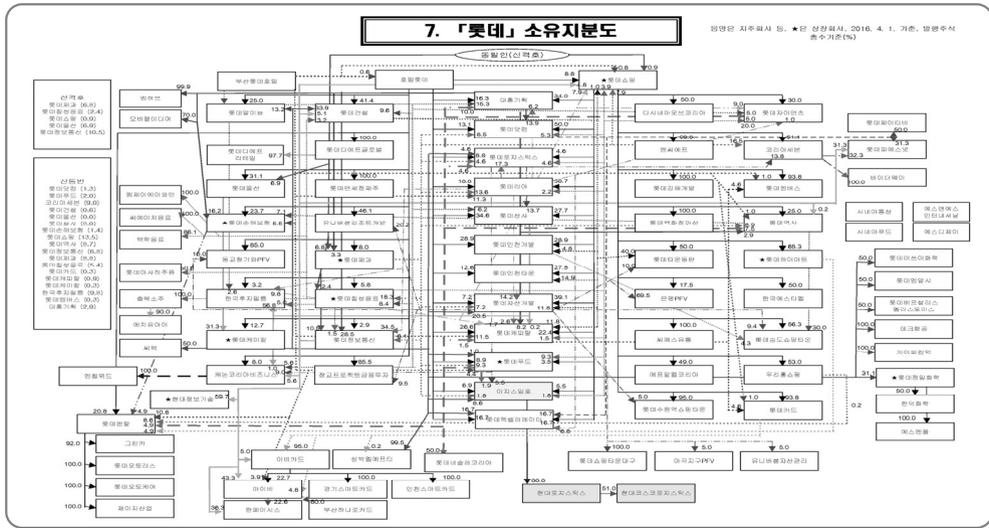
3) 지주회사 전환일(①) 및 제외일(②) : 롯데물산, 롯데산업 - ① 2005년 1월, ② 2006년 12월; 이지스일호 - ① 2014년 9월, ② 2016년 11월; 롯데지주 - ① 2017년 10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둘째, 2015~2016년에는 1개 지주회사(이지스일호)가 새로 생겨 2개 계열회사(자회사 1개, 손자회사 1개)를 거느렸으며,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이전의 1/4 이하인 3~4%([3개] ÷ [80~93개])에 불과하였다. 이 지주회사는 2014년 9월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었으며, 최대주주는 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케미칼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2016년 11월 법률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셋째,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2017년 들어 롯데그룹은 본격적인 지주회사체제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10월에 새 지주회사인 롯데지주가 출범하였다. 최대주주는 그룹 동일인인 신동빈이었다. 12월 현재, 롯데지주의 지배 계열회사는 47개(자회사 20개, 손자회사 26개, 증손회사 1개)였으며,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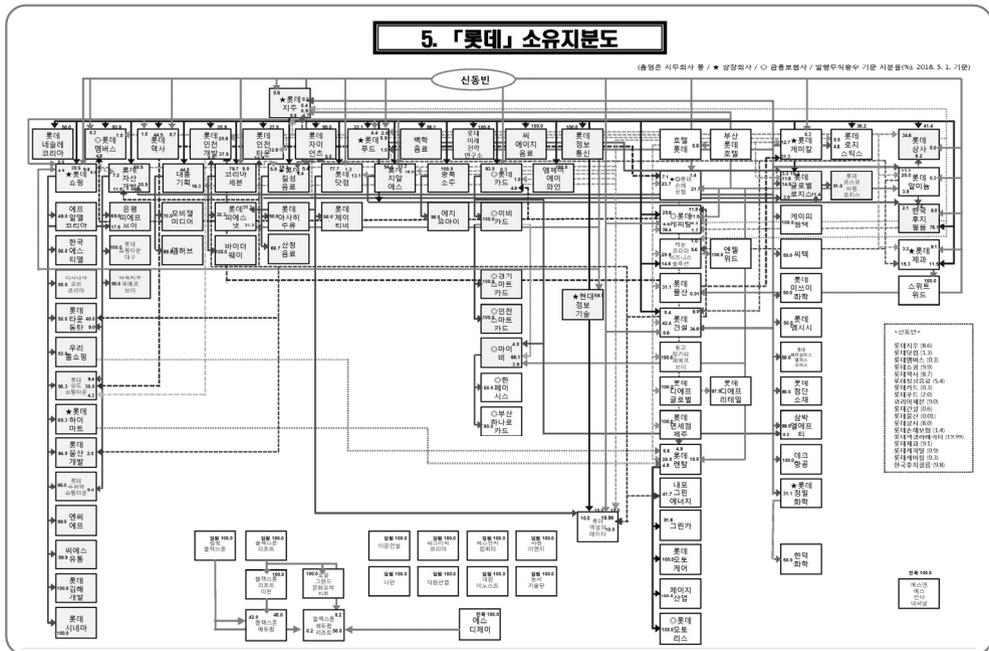
<그림 2> 롯데그룹의 소유지분도 : (2) 2016년 4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 3% (93개 회사 중 지주회사(이지스일호) 및 계열회사 3개)

<그림 3> 롯데그룹의 소유지분도 : (3) 2018년 5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 45% (107개 회사 중 지주회사(롯데지주) 및 계열회사 48개)

둘째, 이러한 사정은 2016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새로 생긴 1개 지주 회사(이지스일호)가 2개 계열회사를 거느리게 되어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이 3%로 미약하게나마 상승하였다. 이지스일호의 최대주주는 롯데정보통신(8.6%)이며, 신동빈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8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셋째, 2018년의 소유지분도는,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맨 위쪽에 위치한 지주회사(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아래 방향으로 상당히 잘 정돈된 ‘보다 투명한 소유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45%([48개] ÷ [107개])였다. 이 비율이 50% 미만인 만큼, 상호·순환출자가 여전히 적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지주의 최대주주는 신동빈(8.6%)이며, 신동빈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이전과 같은 18개였다.

VI.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의 구축, 2017~2018년

롯데그룹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여의 기간에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표 3〉, 〈표 4〉, 〈표 5〉).

1. 1단계, 2017년 4~10월 : 새 지주회사 롯데지주의 출범

2017년 4월 26일, 주요 계열회사인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의 2개 회사로 인적 분할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10월 30일까지 6개월여 만에 분할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분할기일은 2017년 10월 1일로 정해졌다.

먼저, 기존의 롯데제과 영위 사업이 인적 분할을 통해 ‘투자사업부문’(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문)과 ‘사업부문’(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식품사업부문 등의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으로 나뉘어졌으며, 전자는 존속회사로 하되 새로운 상호 ‘롯데지주’를 가지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후자는 신설회사로 하되 이전의 상호 ‘롯데제과’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지배구조 변경의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의 제고’가 제시되었다. 즉, 분할을 통해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제고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각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 확립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증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지주회사 ‘롯데지주’의 목적사업은 17개로 정해졌으며, 이 중 1번은 지주사업 그리고 2~10번은

자회사 지원 관련 사업이었다.

한편, 롯데제과가 롯데지주로 전환함과 동시에, 롯데지주는 3개 계열회사(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이를 위해 3개 회사 각각은 기존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7년 3월 현재 4개 회사들 간에 형성되어 있던 순환출자는 10월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모두 해소되었다.

〈표 3〉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 구축 2단계 과정, 2017~2018년

단계	시기	내용
(1)	2017년 10월	* 롯데제과가 지주회사 롯데지주로 전환, 롯데지주가 3개 계열회사 투자부문 흡수합병
		① 롯데제과의 인적 분할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롯데제과 → 롯데지주 (투자부문: 존속, 지주회사, 상호 변경) + 롯데제과 (사업부문: 신설)
(2)	2018년 4월	* 롯데지주가 5개 계열회사 투자부문 흡수합병 및 1개 계열회사 흡수합병
		① 2개 계열회사의 인적분할 및 투자부문의 롯데지주에로의 흡수합병 롯데상사 → 롯데상사 (존속) + 투자부문 (신설) 롯데지알에스 → 롯데지알에스 (존속) + 투자부문 (신설) 롯데지주 ← (흡수합병) 2개 신설 투자부문
		② 3개 계열회사의 인적분할 및 투자회사의 롯데지주에로의 흡수합병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로지스틱스투자 (존속) + 롯데로지스틱스 (신설) 한국후지필름 → 한국후지필름투자 (존속) + 한국후지필름 (신설) 대흥기획 → 대흥기획투자 (존속) + 대흥기획 (신설) 롯데지주 ← (흡수합병) 3개 존속 투자회사
		③ 1개 계열회사의 롯데지주에로의 흡수합병 롯데지주 ← (흡수합병) 롯데아이티테크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 (1) (2017년 3월) ① 롯데알미늄 [(15.3%) → 롯데제과; (8.9%) → 롯데칠성음료], ② 롯데제과 [(19.3%) → 롯데칠성음료; (7.9%) → 롯데쇼핑; (9.3%) → 롯데푸드], ③ 롯데칠성음료 [(3.9%) → 롯데쇼핑; (9.3%) → 롯데푸드], ④ 롯데쇼핑 [(3.5%) → 롯데푸드].
- (2) (2017년 10월) ① 롯데지주 [(8.2%) → 롯데제과; (19.3%) → 롯데칠성음료; (25.9%) → 롯데쇼핑; (22.1%) → 롯데푸드], ② 롯데알미늄 [(15.3%) → 롯데제과; (8.9%) → 롯데칠성음료]

1단계 과정이 마무리된 직후인 2017년 12월 현재, 롯데그룹은 전체 계열회사 107개 중 절반가량인 48개(1개 지주회사, 20개 자회사, 26개 손자회사, 1개 증손회사)가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되었으며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45%였다(제Ⅲ장 제1절 참조).

2. 2단계, 2018년 1-4월: 11개 상호·순환출자의 해소

2018년 첫 4개월 동안에는 보다 진전된 조치가 취해졌다. 롯데지주가 주요 6개 계열회사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것이다. 7개 회사 간의 지분 정리는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2018년 1월 2일 이사회 결의 이후 4월 13일까지 3개월 여 만에 완료되었다. 합병 및 분할합병 기일은 4월 1일로 정해졌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8개 회사 간에 형성되어 있던 3개 상호출자와 8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체제의 안정화를 기하고 전문경영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1) (해소된 3개 상호출자) ① 롯데지주 → 롯데아이티테크 → 롯데지주, ② 롯데지주 → 한국후지필름 → 롯데지주, ③ 롯데지주 → 대흥기획 → 롯데지주.
- (2) (해소된 8개 순환출자) ① 롯데지주 → 대흥기획 → 롯데아이티테크 → 롯데지주, ② 롯데지주 → 롯데지알에스 → 롯데아이티테크 → 롯데지주, ③ 롯데지주 → 롯데지알에스 → 한국후지필름 → 롯데지주, ④ 롯데지주 →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상사 → 한국후지필름 → 롯데지주, ⑤ 롯데지주 → 롯데지알에스 →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상사 → 한국후지필름 → 롯데지주, ⑥ 롯데지주 → 롯데지알에스 → 대흥기획 → 롯데아이티테크 → 롯데지주, ⑦ 롯데지주 → 롯데지알에스 → 대흥기획 → 롯데지주, ⑧ 롯데지주 → 롯데상사 → 한국후지필름 → 롯데지주.

〈표 5〉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의 구축 :

(2) 2단계-롯데지주의 주요 6개 계열회사 합병 및 분할합병, 2018년 1~4월

(A) 분할 및 합병 일정 (롯데지주 등 7개 회사)				
2018년 1월 2일 : 이사회 결의		2018년 4월 1일 : 합병 및 분할합병 기일		
2월 2일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		4월 2일 : 합병 및 분할합병 종료보고		
2월 27일 : 합병 및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총회(이사회 결의), 합병 및 분할합병 등기 신청		
		4월 13일 : 추가 상장		
(B) 분할 및 합병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배경 :				
1) 3개 상호출자 및 8개 순환출자 해소				
2) 지주회사체제의 안정화, 전문경영/책임경영의 제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2. 방법 :				
1) 롯데지주가 2개 계열회사(롯데지알에스, 롯데상사) 투자부문을 분할합병 및 3개 계열회사(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흥기획) 투자부문을 합병의 방법으로 통합하고, 1개 계열회사(롯데아이티테크)를 흡수합병.				
2) 롯데지알에스, 롯데상사 : 주주가 구주권 제출기간(2018.2.27.~3.30)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롯데지주 주식을 배정받음.				
3)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흥기획: 사업부문을 인적분할방식으로 신설하고, 이들 3개 회사의 각 투자존속법인의 주주가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에 대하여 합병 비율에 따라 롯데지주 주식을 배정받음.				
4) 롯데아이티테크 : 주주가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롯데지주 주식을 배정받음.				
5)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① 분할합병				
롯데상사	: 롯데상사,	-		: 롯데지주가 신설회사 흡수합병
롯데지알에스	: 롯데지알에스,	-		: 롯데지주가 신설회사 흡수합병
② 합병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로지스틱스투자,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지주가 존속회사 흡수합병	
한국후지필름	: 한국후지필름투자,	한국후지필름	: 롯데지주가 존속회사 흡수합병	
대흥기획	: 대흥기획투자,	대흥기획	: 롯데지주가 존속회사 흡수합병	
롯데아이티테크	: -	-		: 롯데지주가 롯데아이티테크 흡수합병
3. 분할 재산 관련 사항 :				
합병법인	롯데지주		(합병비율) 1,	(분할합병비율) 1
피합병법인	롯데지알에스	투자부문	23.2296524	11.0526640
	대흥기획	투자부문	177.1972380	158.6570024
	롯데로지스틱스	투자부문	4.1020564	2.2259210
	롯데상사	투자부문	8.0268668	6.1754949
	한국후지필름	투자부문	77.9832468	66.3798934
	롯데아이티테크		1.1962071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분할 및 합병은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2개 회사(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 투자부문이 신설된 후 후자가 롯데지주에 흡수합병되었다. 투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은 존속회사(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로 개편되었다. 둘째, 3개 회사(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흥기획)은 투자부문(롯데로지스틱스 투자, 한국후지필름투자, 대흥기획투자)이 인적 분할을 통해 존속회사로 분리된 후 롯데지주에 흡수합병되었다. 투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은 신설회사(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흥기획)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셋째, 6개 회사 중 나머지 1개(롯데아이티테크)는 인적 분할 없이 롯데지주에 바로 흡수합병되었다.

V.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 2018년 9월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 구축을 위한 2단계 과정이 마무리된 이후, 체제에 편입된 회사는 48개(2017년 12월)에서 52개(2018년 9월)로 늘어난 반면 그룹 전체 계열회사는 107개에서 91개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45%에서 57%로 더욱 높아져 지주회사체제가 보다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표 6).

1. 롯데지주의 주주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의 주주 분포를 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8.3%(보통주 기준)이다. 특수관계인은 총 30명/개이며, 친족 및 임원(20명), 공익법인(3개), 계열회사(7개) 등 3부류로 구성되었다.

첫째, 최대주주는 2018년 5월 그룹의 새 동일인이 된 신동빈이다. 지분은 10.5%로 적은 편이며, 전문경영인인 황각규와 함께 대표이사직을 가지고 있다. 롯데지주와 롯데그룹의 소유·경영권을 신동빈이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동빈은 롯데지주 외에 17개의 다른 계열회사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7개 회사(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한국후지필름, 롯데상사, 코리아세븐, 롯데역사, 롯데액셀러레이터)에서의 지분은 5% 이상(2018년 5월, 발행 주식 총수 기준)이다. 신동빈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수는 조금씩 늘어나 2012~2013년 14~15개, 2015년 17개 그리고 2016년 이후 18개였다.

〈표 6〉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 2018년 9월

(A) 롯데지주의 주주(보통주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38.3%]

최대주주 1명 : [10.5] 신동빈(* 신동빈, 황각규 : 상근대표이사)
 친족 및 임원 20명 : [5.0] 신격호(2.8), 신영자(2.0), 신동주(0.2), 기타 17명(0.0)
 공익법인 3개 : [3.9] 롯데장학재단(3.7), 롯데문화재단(0.1), 롯데삼동복지재단(0.1)
 계열회사 7개 : [18.9] 호텔롯데(9.0), 롯데알미늄(4.6), 롯데홀딩스(2.2),
 L제2투자회사(1.3), 부산롯데호텔(0.9), L제12투자회사(0.7),
 롯데케미칼(0.2)

롯데지주 (자기주식) : [39.3%]

(B) 롯데지주(*)의 계열회사 : 51개(자회사 24개, 손자회사 27개)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 57%]

그룹 전체 계열회사 : 91개(* 상장회사 11 / 비상장회사 80)
 지주회사체제 편입 회사 : 52개(* 상장회사 8(지주회사 1, 자회사 5, 손자회사 2) /
 비상장회사 45(자회사 19, 손자회사 25))

자회사(24개) : 롯데정보통신(* 70%), 롯데쇼핑(* 38.80), 롯데칠성음료(* 24.94),
 롯데푸드(* 22.10), 롯데제과(* 21.37);
 롯데미래전략연구소(100), 씨에이치음료(100), 엠제이에이와인(100),
 충북소주(100), 롯데멤버스(93.88), 롯데카드(93.78), 롯데자이언츠(95),
 백학음료(86.06), 코리아세븐(79.66), 한국후지필름(76.09), 롯데자산개발(60.47),
 대흥기획(56.49), 롯데지알에스(54.44), 롯데네슬레코리아(50), 롯데역사(44.53),
 롯데상사(41.37), 롯데로지스틱스(36.22), 롯데인천타운(27.45),
 롯데글로벌로지스(15.22)

손자회사 (27개) : * 롯데정보통신 (1개) : 현대정보기술(* 59.68)
 * 롯데쇼핑 (13개) : 롯데하이마트(* 65.25);
 롯데김해개발(100), 롯데컬처웍스(100),
 씨에스유통(99.95), 롯데지에프알(99.93),
 롯데수원역쇼핑타운(95), 롯데울산개발(94.84),
 롯데송도쇼핑타운(56.30), 우리홈쇼핑(53.03),
 롯데제이티비(50), 롯데타운동탄(50),
 한국에스티엘(50), 에프알엘코리아(49)
 * 롯데칠성음료 (2개) : 산청음료(66.67), 롯데아사히주류(50)
 * 롯데제과 (1개) : 스위트워드(100)
 충북소주 (1개) : 에치유아이(90)
 롯데카드 (1개) : 이비카드(100)
 코리아세븐 (2개) : 바이더웨이(100), 롯데피에스넷(32.34)
 롯데자산개발 (3개) : 마곡지구피에프브이(100), 은평피에프브이(69.50),
 롯데쇼핑타운대구(100)
 대흥기획 (2개) : 모비젼미디어(70), 엠허브(99.90)
 롯데글로벌로지스(1개) : 롯데코스코쉬핑로지스(51)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둘째, 20명의 친족 및 임원이 5%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3명의 가족구성원(아버지 신격호 2.8%, 누나 신영자 2%, 형 신동주 0.2%)이 지분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셋째, 신동빈 일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3개 공익법인이 3.9%를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장학재단의 지분(3.7%)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넷째, 7개 계열회사가, 다른 두 부류의 특수관계인 지분보다 훨씬 많은, 18.9%를 가지고 있다. 호텔롯데(9%), 롯데알미늄(4.6%), 롯데홀딩스(2.2%) 등 3개 회사의 지분은 2% 이상씩이다.

한편, 롯데지주는 자기주식을 39.3% 보유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전체 지분(38.3%)보다 많은 수치이며, 최대주주 지분과 비교하면 거의 4배에 달한다. 또 외부주주들 중 소액주주의 지분은 29.1%이다.

2. 롯데지주의 계열회사

롯데지주의 계열회사는 총 51개이다. 자회사 24개 그리고 손자회사 27개이며, 이들 중 상장회사는 각각 5개, 2개이다.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도 상장회사이며, 이를 포함하면 그룹 전체 11개 상장회사 중 대부분인 8개가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되어 있다.

롯데지주가 보유한 5개 상장자회사 지분은 70-21.37%이며, 19개 비상장자회사 지분은 100-15.22%이다. 24개 자회사 중에서는 10개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 10개 자회사 중 4개(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는 상장회사, 6개는 비상장회사이다. 롯데쇼핑이 13개의 손자회사를 거느리면서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자회사는 각각 1~3개씩의 손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VI. 맺음말 : 요약 및 전망

본 논문은 최근 1년여 사이에 진행된 롯데그룹 소유구조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새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의 출범(2017년 4~10월)과 11개 상호·순환출자의 해소(2018년 1~4월)를 통해 그룹 계열회사의 절반 이상이 지주회사체제로 조직되었다(91개 중 52개, 57%). 아직은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롯데지주의 지분구조가 아직은 충분하게 정비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대주

주 및 친족의 지분(보통주 기준 10.5%, 5%)이 적은 점, 최대주주가 다수의 다른 계열 회사(17개)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주요 계열회사(7개)가 지주회사의 지분(18.9%)을 상당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점, 자기주식의 비중(39.3%)이 매우 높은 점 등이 이를 말해 준다.

먼저, 2018년 5월 현재의 10대 그룹 중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다른 5개 그룹과 비교하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및 친족 지분'은 매우 적다. 발행 주식 총수 기준 8.6%이다. 이에 비해, SK그룹은 23.2%(최태원), LG그룹은 31.9%(구본무 11.1%, 친족 20.8%), GS그룹은 40.9%(허창수 4.7%, 친족 36.2%), 농협그룹은 100%(농협중앙회),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은 30.9%(정몽준 25.8%, 친족 5.1%)이다. 롯데 그룹보다 조금 일찍 2017년 초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현대중공업의 경우, 1년 전(2017년 5월 10.2%(정몽준))에 비해 지분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롯데그룹 또한 최대주주의 지분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오너 일가의 소유권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신격호) 및 형제(신동주, 신영자)와의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친족 지분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최대주주(신동빈) 개인의 지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다른 계열회사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분 보유 회사는 17개로 매우 많고 지분(19.99-0.01%)도 큰 편이다. 이에 비해, SK그룹은 3개(0.4-0.0%), LG그룹은 1개(1.1%), GS그룹은 2개(11.9-10.4%), 농협그룹은 4개(100-1.5%),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은 0개이다. 또 신동빈의 지분 증가를 위해서는 지주회사에 다른 계열회사들의 보유 지분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7개 계열회사가 18.9%(보통주 기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2개 회사의 지분이 많다(호텔롯데 9%, 롯데알미늄 4.6%). 다른 5개 그룹 지주회사(☞SK, ☞LG, ☞GS, 농협경제지주 및 농협금융지주, 현대중공업지주)에서는 계열회사의 지분이 전혀 없다.

한편,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다른 5개 그룹 지주회사에서는 관련 지분이 없는데 반해, 롯데지주에서는 39.3%나 된다. 자사주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2018년 1~4월에 진행된 5개 계열회사의 투자부문 및 1개 계열회사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이들 6개 회사들이 보유했던 롯데지주 지분이 흡수합병 주체인 롯데지주로 자연스럽게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자사주는 경영권 강화, 기업분할, 적대적 인수 대비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의 비중은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첫 조치로 2018년 11월 '롯데지주의 자사주 24.5%(전체 주식 10%) 소각'이 결정되었다(〈표 7〉).

〈표 7〉 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진행 상황, 2018년 11월

월일	관련 회사	내용
11.21	롯데지주	* 자사주 24.5%(전체 주식의 10%) 소각 결정 → 주식 가치 상승 효과 기대
		* 자본잉여금(4.5조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결정 → 배당 가능 재원 확보 및 주주 이익 제고
11.27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 2개 금융계열회사 매각 발표 금융계열회사는 지주회사 설립(2017년10월) 이후 2년 이내에 정리해야 함 롯데캐피탈은 당분간 유지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로지스틱스	* 2개 물류 계열회사 합병 결정 2019년3월 합병 예정, 존속 법인은 롯데글로벌로지스, 상호 변경 예정

주 : 롯데지주 보유 지분 : (93.78%) 롯데카드, (15.22%) 롯데글로벌로지스, (36.22%) 롯데로지스틱스
출처 : 조선일보.

소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자사주의 비중은 현재보다 다소 낮아지게 된다(39.3% → 29.3%). 이번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롯데지주의 자본금은 23억 3,140만 원가량 그리고 발행 주식 수는 1,166만 주가량 줄어들게 된다. 전체 유통 주식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주주들이 보유한 남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롯데지주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지주회사체제를 보완하는 3가지 다른 조치도 취해졌다. 롯데지주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으로의 전환 결정, 2개 금융계열회사(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의 매각 결정, 그리고 2개 물류 계열회사(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로지스틱스)의 합병 결정이다.

이들 4가지 조치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조치가 추가적으로 취해질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최대주주 신동빈의 롯데지주 소유권이 어느 정도로 강화될지, 이를 위해 신동빈의 다른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그리고 롯데지주에 대한 다른 계열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정리될 지이다. 또 여전히 남아 있는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고리가 정리되어 얼마나 많은 계열회사가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의 피라미드식 상하 지분관계 즉 투명한 지배구조로 재편될지, 그리고 그 결과 지주회사체제가 어느 정도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주목된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가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면 새로운 지배구조의 성격과 의의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이전에 비해 이후에,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얼마나 제고되었는지 그리고 경영성과와 배당정책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와 다른 그룹 지주회사체제의 비교 연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다른 그룹의 경우도 지주회사체제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벌과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000년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여 2019년 현재 20년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SK그룹의 경우, 2016년에 비로소 최대주주(최태원)가 지주회사(주 SK)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 이전까지는 비상장회사(SK C&C)를 통한 간접 지배구조였다. 또 두 번째로 긴 1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LG그룹에서도, 2018년 최대주주(구분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양아들(구광모)이 새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주 LG)의 주주 구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05년 LG그룹에서 분리되어 출범 때부터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한 GS그룹의 경우에는, 여러 허씨 일가가 계열회사들을 분할 지배하면서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았는데, 후자의 회사들 중 ‘코스모앤컴퍼니’ 계열회사들이 2016년 분리되면서 지주회사체제의 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재벌과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작업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10대 그룹인 롯데와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하는 등 새로운 지배구조로서의 지주회사체제 도입은 이미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1999년 지주회사체도가 재도입된 지 올해(2019년)로 21년째가 된다. ‘혼탁한 순환출자구조보다는 투명한 지주회사체제가 그래도 낫다’는 취지였다. 지배구조의 외형적인 모습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롯데그룹의 소유지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3장 참조). 문제는 지주회사체제 도입 이후 오너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강화되고, 이로 인해 ‘재벌공화국’의 이미지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지주회사체도가 재도입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작용’이기도 했다.

지주회사체도가 재도입된 지 21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체도의 도입 취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지주회사체제’를 재검토, 재조명 작업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2000~2018),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수 현황' (1987~1999), '대규모기업집단 자산총액 현황' (1987~199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1999~2018),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2000~2018),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2004~2018).
- 김동운(2010),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SK그룹의 사례', <경영사학> 제25권 제2호.
- 김동운(2011), 'LG그룹 지주회사체제와 개인화된 지배구조의 강화, 2001~2010년', <경영사학> 제26권 제3호.
- 김동운(2012), '지주회사체제와 개인화된 지배구조의 강화: CJ그룹의 사례, 1997~2012년', <경영사학> 제27권 제3호.
- 김동운(2013),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주요 추세 및 특징, 2001~2011년', <경영사학> 제28권 제2호.
- 김동운(2014), 'GS그룹의 소유구조, 2005~2013년', <경영사학> 제29권 제4호.
- 김동운(2016), '한진그룹 오너 조양호 일가의 소유지배에 관한 사적 고찰', <경영사학> 제31권 제4호.
- 롯데지주(2017~2018), '증권발행실적보고서(분할합병)' (2017.10.12., 10.23, 10.30), '증권신고서(합병)' (2018.1.4., 1.15, 1.25, 1.31),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 결정)' (2018.1.2., 1.23),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 및 분할합병)' (2018.4.2.), '제52기 반기보고서' (2018.1.1.~6.30), '제52기 분기보고서' (2018.1.1.~9.3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롯데제과(2017),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 (2017.4.26.),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 결정)' (2017.4.26., 6.29, 7.25), '증권신고서(분할)' (2017.7.6., 7.17, 7.25, 8.2), '증권신고서(합병)' (2017.7.6., 7.26, 8.2, 8.1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서울신문사 산업부(2004), 『재벌 家 脈(상)』, 무한.
- 이한구(2010), 『한국 재벌사』, 대명출판사.
- 『조선일보』(2018.11.22., 11.28).
- 최정표(2014), 『한국 재벌사 연구』, 해남.

The Holding Company System in Lotte Group

Dong-Woon Kim*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corporate governance of Lotte Group, the 5th largest group in Korea as of 2018, has changed from the interlocking ownership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e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two stages. First, in October 2017, Lotte Confectionery, a key member company of the Group, was transformed into a holding company called Lotte Holding Company, which, at the same time, took over the 'investment' segments of three member companies. And, second, in April 2018, the new holding company merged the 'investment' segments of five other companies and, also, one company as a whole.

As the result, in Lotte Group as of May 2018, a nearly half of the member companies (48 of 107 companies; 45%) was organized in the holding company system, which consisted of one holding company (Lotte Holding Company), 20 son companies, 26 grandson companies, and one grand-grandson company. The representative owner of the holding company is Dong-Bin Shin, the second son of Gyuk-Ho Shin, the founder, but he has only 10.5% of the whole shares while his intimate group, including his family members, has 27.5% and, more significantly, the holding company itself 39.3%. Among the Shin's intimate groups are included seven member companies and, at the same time, Shin still owns shares in 17 other companies, except the holding company.

The transformat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Lotte Group into a holding company system is still in progress. It is expected that, as time goes on, Shin's shareholding in the holding company will be gradually strengthened and, also, into a fully-fledged system will be developed with more and more member companies.

<Key Words> Lotte Group, Corporate governance, Holding company system, Holding company, Lotte Holding Company, Dong-Bin Shin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Dong-Eui University.